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의미와 평가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차 례 ●●●

1. 제10차 ASEM 정상회의
2. ASEM의 발전과정과 운영원칙
3.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내용
4.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ASEM 정상회의는 1996년 발족한 이래 총 10차례 개최되면서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대화·협력체 역할을 수행해왔음.
 - ASEM은 출범 당시 아시아 10개국(ASEAN+한·중·일)과 EU 15개국(+EU 집행위원회) 간에 개최되었으나, 이후 EU의 중동부 유럽 확대 및 ASEAN의 외연 확대,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대양주 및 유라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총 51개국, 2개 지역협약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협의체로 발전하였음.
 - ASEM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영역에 걸쳐 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② 합의의 원칙 ③ 비공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왔음.
- ▶ 2014년 10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계성, 동반자 관계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자유토론 세션의 도입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자연스러운 토론 분위기를 강조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핵문제와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지역 간 연결성을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음.
- ▶ ASEM이 향후 열린 협의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도 ASEM 내 리더십 확보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ASEM은 회원국간의 국력, 경제수준 및 정치적 이해가 매우 상이한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합의의 내용이 규범적 차원에 그치고,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대화·협력체로서의 ASEM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조정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바, 가령 아시아와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양자간·다자간 FTA는 중요한 협력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는 ASEM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문화·교육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1. 제10차 ASEM 정상회의

- 2014년 10월 16~1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제10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1996년 처음 실시된 이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는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 간의 포괄적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왔음.
 - ※ 아시아와 유럽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며 2012년 베트남, 2014년 이탈리아에 이어 2016년에는 몽골에서 개최될 예정임.
- 현재 ASEM의 총 회원국 수는 51개국(+2개의 지역협의체: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이며, ASEM 지역은 전 세계 인구의 63%, 총생산의 58%를 차지함(부록 표 1, 2를 참조).

표 1. ASEM의 회원국

지역	회원국
아시아 (16개국+1)	ASEAN 회원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ASEAN 사무국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대양주(2)	호주, 뉴질랜드
유라시아(3)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유럽 (30개국+1)	EU 회원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EU 집행위원회 기타 유럽: 노르웨이, 스위스

- 본고에서는 ① ASEM의 발전과정을 분석적으로 정리하고 ② 10차 ASEM 정상회의의 내용을 한국 및 ASEM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한편 ③ 향후 ASEM의 협력방안과 유효성을 건설적인 방향에서 고찰해보고자 함.

2. ASEM의 발전과정과 운영원칙

가. ASEM의 발전과정

- ASEM의 설립은 아시아가 유럽,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축으로 부상하던 상황에서 아시아·유럽 간 공식적 대화 채널이 부재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음.¹⁾
- EU는 대아시아 외교강화를 위한 대화 채널이 필요함²⁾을 인식하고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희망하

였으며, 아시아 국가들도 유럽의 보호무역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음.³⁾

- 이에 1994년 10월 싱가포르의 고축동 총리는 파리 방문 중 당시 EU 순회의장국이던 프랑스 정부에 양 지역 간의 협력체 설립을 제의했으며, 이에 한·중·일 및 ASEAN, 그리고 EU가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ASEM이 설립되었음.

글상자 1. ASEM 설립의 국제정치적 배경

- EU는 동아시아의 성장으로 인해 동아시아 내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입지의 강화를 희망하였고, 아시아·미국의 협력체인 APEC을 견제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었음.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는 유럽 통합의 심화와 유럽·북미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유럽과의 협력강화가 필요하였으며,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EU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견제할 협력 채널이 필요하였음.
- 유럽과 동아시아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대 지역으로서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됨.

■ 설립 당시 ASEM은 아시아 10개국(ASEAN 7개국, 한·중·일)과 EU 15개국, EU 집행위원회 등 총 25개국 (+EU 집행위원회)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EU의 중·동부유럽 확대에 따른 회원국 수 증가, ASEAN의 외연 확대에 의해 참가국 수가 증가하였음.

- 2008년 제7차 정상회의(중국 북경)를 계기로 기존의 ‘유럽 = EU’, ‘아시아 = ASEAN+3’의 등식에서 벗어나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도 가입하면서 외연이 대폭 확대되었음.

글상자 2. ASEM 회원국 수의 확대 과정

- 제1차 정상회의(1996년 태국 방콕)
 - EU 회원국(15개국+EU 집행위원회) 및 ASEAN 회원국(7개국), 한국, 중국, 일본이 참석(총 25개국 + EU집행위원회)
 - ※ 유럽 측(EU 15개 회원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EU 집행위원회
 - ※ 아시아 측(ASEAN 7개 회원국+한·중·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한국, 중국, 일본
- 제5차 정상회의(2004년 베트남 하노이)
 - EU의 확대에 따른 중·동부 유럽 10개국(몰타, 키프로스 포함)이 가입하였으며, ASEAN의 확대에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가입(회원국 수 38개국 + EU 집행위원회)

1) 1996년 출범 당시 ASEM은 EU 회원국(15개국+EU 집행위원회)과 ASEAN+3(10개국) 간에 개최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회원국 확대를 거쳐 인도 등 서남아시아 국가 외에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대양주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가입하였음. 유럽 측 기준에 따르면 대양주 및 유라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측 회원국으로 분류되나, ASEAN+3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아시아로 보기는 어려우며, 유럽·아시아의 이분법적인 회원국 구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2) European Commission(1994), *Towards a New Asia Strategy*. COM(94) 314.

3) 김정기(2004), 「ASEM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 제32집, p. 27.

글상자 2. 계속

- 제7차 정상회의(2008년 중국 북경)
 - 중·동부 유럽 2개국(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상 유럽 측)과 몽골, 인도, 파키스탄(아시아 측)이 가입하였으며, ASEAN-사무국도 공식적으로 참여를 시작(회원국 수 43개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제8차 정상회의(2010년 벨기에 브뤼셀)
 -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가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럽=EU, 아시아=ASEAN+3로 구분되던 전통에서 더욱 벗어나 외연이 크게 확대(회원국 수 46개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제9차 정상회의(2012년 라오스 비엔티안)
 - 노르웨이, 스위스(이상 유럽 측)와 방글라데시(아시아 측)가 가입(회원국 수 49개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제10차 정상회의(2014년 이탈리아 밀라노)
 - 크로아티아(유럽 측, EU의 확대를 반영)와 카자흐스탄(아시아 측)이 공식 가입(회원국 수 51개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ASEM은 1996년 1차 정상회의 이후 격년에 걸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무·경제·재무부문의 장관회의를 개최함.

- 1998년 2차 정상회의(런던)에서는 ASEM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유럽협력 지침서(AECF: Asian Europe Cooperation Framework)를 채택하였으며, 2000년 제3차 정상회의(서울)에서는 향후 10년간 ASEM 운영의 비전과 원칙을 담은 AECF2000을 채택함.
 - 특히 제3차 정상회의부터는 기존의 의장성명서(Chair's statement) 외에 보다 구체적인 선언과 협력체제를 채택하기 시작함.
 -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제3차), 한반도 평화에 관한 코펜하겐 정치선언,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제4차), 문화·문명 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제5차), 기후변화에 관한 ASEM6 선언(제6차),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제7차)
- 2002년 제4차 정상회의(코펜하겐)부터는 양 지역간의 이슈 이외에 대테러 전쟁과 이라크 전쟁, WTO의 도하 개발 어젠다(DDA)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정치·경제적 논의가 활발해짐.
 - 제4차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을 채택하고, DDA 이행을 위한 공감대하에 무역·투자 및 금융 분야의 협력을 위한 Task Force를 설립

표 2. 역대 ASEM 정상회의와 주요성과

구분	개최지	개최일시	주요내용
제1차	태국 방콕	1996. 3. 2	- 최초 정상회의, 의장성명서 채택 - 26개국 참여(ASEAN+한·중·일, EU 15개국 및 집행위원회) -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EVG) 설치
제2차	영국 런던	1998. 4. 3~4	- 아시아·유럽 협력 기본지침서(AECF) 채택 - 아시아 금융경제 상황에 관한 성명서 채택 - ASEM 신탁기금 창설
제3차	한국 서울	2000. 10. 19~21	- 아시아유럽협력제도 2000(AECF 2000) 채택 - 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

표 2. 계속

구분	개최지	개최일시	주요내용
제4차	덴마크 코펜하겐	2002.9.22~24	-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 - 반국제테러 협력 프로그램 - 한반도평화에 관한 코펜하겐 정치선언 채택 - WTO DDA 타결 노력 - 무역·투자 및 금융 분야 협력을 위한 Task Force 설립
제5차	베트남 하노이	2004.10.8~9	- 중동·유럽 10개국, 미얀마, 라오스 참석 - 아시아·유럽 경제동반자 선언 -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
제6차	핀란드 헬싱키	2006.9.10~11	- ASEM 10년 평가에 대한 의장성명서 - ASEM 미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 - 기후변화에 관한 ASEM6 선언 - 몽골, 인도, 파키스탄, ASEAN 사무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승인
제7차	중국 북경	2008.10.24~25	- 의장성명서(한반도 비핵화 지지) - 국제통화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논의,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워싱턴 G-20(2008.11.15)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베이징 선언
제8차	벨기에 브뤼셀	2010.10.4~5	- △경제·금융 위기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 이슈 △지역 이슈 △인적교류와 ASEM을 주제로 논의, 의장성명서 채택(제목: 모든 시민의 안녕과 존엄성의 증진) -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브뤼셀 선언’ 채택. 이 선언 중 G20 서울 정상회담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피력 -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가입
제9차	라오스 비엔티안	2012.11.5~6	- ‘평화의 친구, 번영의 동반자’ 주제로 개최 ※ 의장성명서에 글로벌 기후기금(GCF) 설립에 대한 환영 포함 - ‘평화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비엔티안’ 선언 채택

나. ASEM의 운영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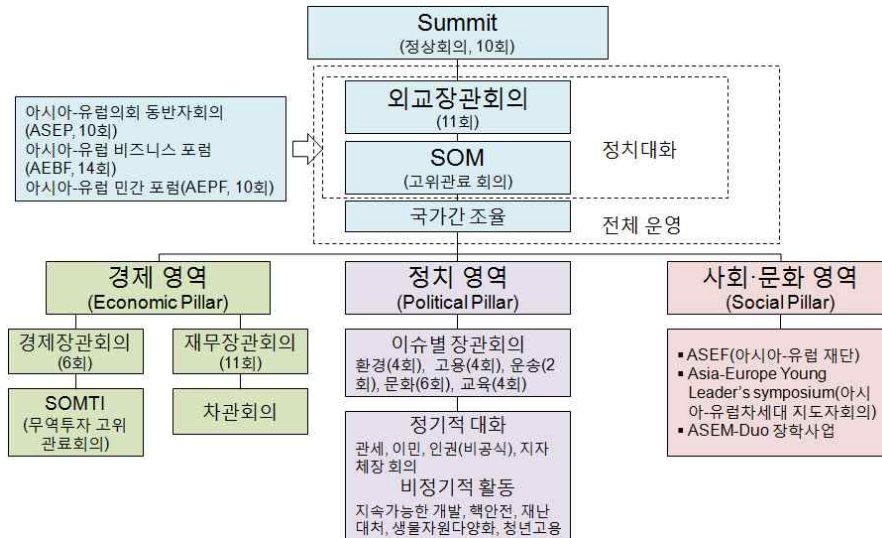
■ ASEM의 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영역에 걸쳐 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② 합의의 원칙 ③ 비공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 ASEM은 양 지역간 정치적 대화 증진, 경제적 관계 강화, 문화교류 발전을 목적으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시키는 데 중점을 둠.
- 상호존중과 합의의 원칙으로 운영되므로 국가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립되기는 어려우나 양 지역간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따라서 독자적인 리더 국가의 등장이 어려운 UN형(vs. IMF형) 국제협의체로 볼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함.
-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매우 포괄적인 주제에 걸쳐 협력방안이 모색된다는 점도 경제(APEC) 또는 정치적 영역(과거의 ASEAN)에 협력이 국한되는 여타의 다자협의체와 성격이 다름.

■ 특히 2006년에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헬싱키)에서는 창설 10주년을 맞아 ASEM의 임무와 운영상의 기본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의제중심의 리더십’ 체제가 정착되었음.

- 제6차 정상회의에서는 ‘ASEM의 미래에 관한 헬싱키 선언’이 채택되었는데, 이 선언은 ASEM의 임무를 ‘아시아와 유럽의 접합점(serving as a prime point of convergence between Europe and Asia)’으로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주제에 대한 대화체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함.
- 비공식성(informality), 관계구축(net-working), 유연성(flexibility)을 특징으로 하는 ASEM 운영의 성격이 재확인되었으며, 의제 중심의 리더십(issue-based leadership)이 도입됨.
- 의제 중심의 리더십: ASEM 내 핵심의제별(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대 협력분야)로 복수(아시아, 유럽 각각 최소 1개국)의 국가가 리더로 의제를 주도, ASEM 프로세스의 활성화를 도모함.

그림 1. ASEM의 구조



주: 1) 괄호 안의 횟수는 2014년 10월까지 개최된 총 회의 횟수를 의미함.

2) ASEP: 아시아·유럽의회 동반자회의(Asia-Europe Parliamentary Partnership), AEBF: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sia-Europe Business Forum), AEPF: 아시아·유럽 민간 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 SOM: 고위관료 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TI(Senior Officials' 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ASEF(아시아-유럽 재단, Asia-Europe Foundation)

자료: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EUEA), http://eeas.europa.eu/asem/docs/asem_structure_en.pdf.

3.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내용

■ 제10차 ASEM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을 주제로 특히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connectivity) 강화가 강조되었음.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크게 5가지 정책 방향을 통해 협력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의장성명서를 통해 파악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연계성, 동반자 관계가 강조된 것이 특징임.

- [표 4]에 요약된 바와 같이 과거의 의장성명서와 유사한 의제를 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아시아·유럽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제가 재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주제별로 의제를 나열해오던 제8차(브뤼셀), 제9차(비엔티안) 정상회의의 의장성명서와는 다른 모습임.
- 연계성 개선은 인적교류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 복합수송망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강조되었으며, 아시아·유럽 간의 동반자적 관계, 동등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 점을 엿볼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유럽 간의 무역·투자 교류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럽 측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 EU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표 3.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의장성명서

1) 유럽·아시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금융·경제 협력 증진
· 균형적 성장과 고용달성을 위한 경제·금융 개혁의 중요성 강조
·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복합수송망 등 인프라 체계 구축 요청
·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비관세장벽 해소노력
· 중소기업의 혁신 및 연구자, 혁신가들의 지역간 협력 및 이동성 강화
· G20의 역할을 환영, IMF의 쿼터와 의사결정구조 개혁 지지
2) 상호 연결된 세계 속에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아시아 동반자 관계
· 기후변화에 시급한 대처를 인식, 온실가스 배출량 축소를 위한 즉각적인 노력에 의견수렴
·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한 노력 및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를 위한 공동의 노력
· 인권보호 및 문화적·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관용을 강조
· 재난 준비 및 대응역량을 강화, 아동,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건을 위한 협력 강화
· 식량·물·에너지 안보에 대한 공동의 노력
3) 고용, 교육, 사회, 문화 문제에 대한 협력확대
· 포용적 개발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와 여성 및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 필요
· 교육의 역할 강조, 견습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 인식
·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ASEF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
4) 지역 및 국제 이슈
·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분쟁 해결
·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인식
· 에볼라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
· ASEAN의 지역통합 노력 환영
· 자유토론 세션(Retreat session)을 통한 자유주제 개선: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이라크 문제, 테러리즘, 아프리카 상황,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사태
5) ASEM의 발전 방향
· 새로운 ASEM 이니셔티브의 목록(부속서 I)과 2014-2016을 위한 ASEM 사업 계획(부속서 II) 승인
· 다음 정상회의까지 ASEM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 마련

자료: ASEM10-Chair Statement로부터 정리, <http://www.aseminfoboard.org/summit-statement.html>.

■ 이번 회의에서는 최초로 자유토론 세션(retreat session)이 도입되었으며, 어젠다(agenda)도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

- 자유토론 세션에서는 ASEM의 취지 속에서 각 회원국의 정책 및 입장을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높이고, 토론의 장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음.
- 자유토론 세션은 한 정상이 한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참가하도록 하여 지역 및 국제 이슈에 대해 정상들간의 보다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음.⁴⁾

-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핵문제와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을 소개하였음.
- 구속력 없는 백과사전식 의장성명서가 채택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존의 20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축소된 의장성명서가 작성되었음.

■ 또한 ASEM 정상회의와 별도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EU 및 회원국 정상들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대표적인 예임.

- 일반적으로 ASEM 정상회의 중 많은 양자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ASEM이 창출하는 또 다른 정상급 외교의 기회로 볼 수 있음.⁵⁾
-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이탈리아 총리의 초청으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하였으며, EU 집행위원장, EU 이사회 상임의장, 독일, 프랑스, 영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약식회담이 이루어졌음.

■ 한국은 기존에 주도해오던 협력 사업 외에 ①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및 전문가 그룹 구성 ② ASEM 협력사업 평가기준 제안 ③ 노인인권에 대한 선언 창출 및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음.

표 4. 한국정부의 신규협력사업 제안

제안 사업	주요 내용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 심포지엄 및 전문가 그룹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러시아, 중국 등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유라시아 연계 협력증진 방안 및 우선추진 과제 논의 - 국경통관, 교통 및 인프라 개선, 국가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ASEM 협력사업 평가기준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 ASEM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 수립 - ASEM 협력사업의 실효성 강화에 기여
노인인권에 대한 선언 창출 및 노인인권정책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ASEM 회원국 간 협력 강화

4) *Friends of Europe*(2014), "Milan Summit could mark turning point for ASEM," (November 10)

5) "ASEM 정상회의 중 주변에서 개최되는 많은 양자 정상회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나는 이점에 만족하고 있다." Deutsche Welle. Asia and Europe meet in Milan. October 16, 2014. EU 이사회 상임의장 롬푸이(Herman Van Rompuy) 발언.

4. 평가 및 향후 전망

■ 그동안 ASEM은 회의의 규모에 비해 성과가 빈약하고,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ASEM은 지역주의에 입각한 협의체로는 최대 규모이나 회원국간의 국력, 경제수준 및 정치적 이해가 매우 상이하여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움.
- 정치부문에서는 국가간의 평등과 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에 입각하고 있어, 합의내용이 규범적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조치를 도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무언의 압력(peer pressure)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자발적인 협력제안에 입각한 경제협력은 협력안의 이행이 전적으로 제안국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협력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기 쉽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한계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던 ASEM은 이후 회원국의 참여도(특히 유럽 측)가 저하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음.
- 유럽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결집성과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왔음.

■ 그러나 ASEM은 그 임무와 운영원칙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아시아와 유럽 간 대화의 창으로서 충분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ASEM을 통해 구체적이고 구속성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던 것은 협의체로서의 기능 부족보다는 애초에 ASEM의 임무와 운영원칙이 비공식성, 관계구축, 유연성을 기반으로 합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임.
- ASEM 회원국은 초기부터 구속력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으며, 이는 ASEM의 공식기구가 없다는 점.⁶⁾ 또한 운영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 협력의 심화와 회원국의 외연 확대가 다소 상충적인 방향임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ASEM이 보여온 외연 확대 과정은 관계구축, 유연성에 기반을 둔 운영원칙이 반영된 것임.
- 반면에 ASEM은 매우 상이한 조건을 가진 국가간, 지역간 대화의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회원국들도 ASEM 정상회의로 인해 파생된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SEM 정상회의는 지역협의체로서는 최대 규모의 정상이 회합하는 자리이며, 이를 계기로 많은 양자간, 다자간 정상회담, 후속차원의 장관 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왔음.

6) 제3차 정상회의(서울)에서 보고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AEVG)의 보고서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으며, 가상사무국(Virtual Secretariat) 설치를 통해 회원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음. 실제적으로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유럽 재단(ASEF)이 ASEM Infoboard를 운영하면서 정보수집 및 확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반면에 열린 협업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이 무역,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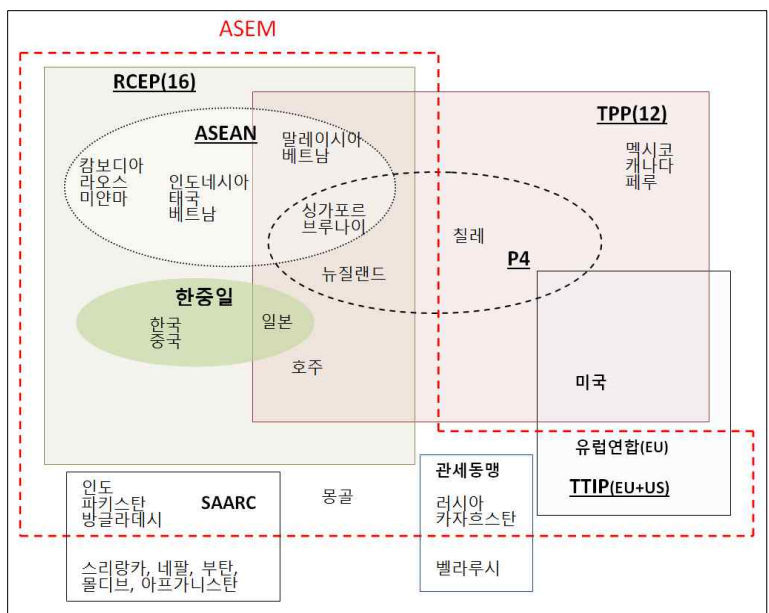
- 규범적 차원의 의제 외에 구체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조정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바, 가령 아시아와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양자간·다자간 FTA는 중요한 협력의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EU는 한국과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싱가포르와 FTA를 타결하였고,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 FTA를, 중국과는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미국과 FTA인 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추진 중임.
-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한·중·일 FTA 등 다자 FTA를 추진 중임.
-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ASEM을 상호간 FTA에 대한 정보교환, FTA의 부분요소별 비교 및 벤치마킹, 규제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⁷⁾

표 5. EU와 아시아 국가 간의 FTA

대상국	경과
한국	- 2007년 5월 협상 시작 - 2011년 7월 발효
싱가포르	- 2010년 3월 협상 시작, 2013년 9월 가서명. 현재 투자 Chapter 협상 중
인도	- 2007년 6월 협상 개시 후 11차 협상 까지 완료 - 서비스, 정부조달 등 잔여쟁점을 두고 난항
말레이시아	- 2010년 10월 협상 시작,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 잔여 쟁점에서 난항
베트남	- 2012년 6월 협상 개시, 2014년 9월 9차 협상까지 진전
태국	- 2013년 3월 협상 개시, 2014년 4월 4차 협상까지 진행 후 협상보류
일본	- 2013년 4월 협상 개시 후 2014년 10월 7차 협상까지 진행

주: 국내 총 가스 소비 중 러시아산(産) 가스의 비중.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4) 및 언론자료 취합.

그림 2. ASEM 회원국이 속한 다자간 무역협정 및 협력기구



주: RCEP(포괄적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TIP(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SAARC(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자료: 언론자료를 통한 저자의 재구성.

7) 그동안 EU는 ASEM 경제협력의 한 축인 경제장관회의(Economic Minister's Meeting)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는 EU가 개별 아시아 국가들과 FTA 등 무역·투자 협정을 추진 중이며, 협정의 운영 및 협상에 있어 그룹으로서의 아시아와의 대면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임(Pelkmans, Jacques and Weinian Hu(2014), "Does ASEM work?" CEPS Policy Brief No. 321. p. 7). 그러나 RCEP, TP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 FTA 협상은 EU가 아시아 국가들을 그룹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배경을 형성하고 있음.

- ASEM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교류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 발굴, ASEM 차원의 시민사회 대화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ASEM은 정상회의에 중심을 둔 운영방식의 한계상 시민사회간의 교류가 적었으며, 이는 정상회의의 기간을 제외하고 ASEM의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주원인이 됨.⁸⁾
- ASEM 운영방식의 특성(비공식성, 유연성)상 오히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공식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바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ASEM 차원의 연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ASEM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문화·교육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갖춘 동북아의 중형국가로서 한국은 외교·통상 부문의 정책에서 ASEM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외교적 영향력 확보, 동북아시아의 안보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공통의 법과 기능주의적 교류 확대를 통해 과도한 주권경쟁을 막은 EU의 통합사례는 아시아 내 영토분쟁 등 잠재적 위협요인을 낮출 수 있는 외교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음.
- 동아시아에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과의 양자외교 외에 지역 대 지역 차원의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정세 속에서 동아시아의 분쟁가능성을 억제하는 대내외적 압력을 형성해낼 수 있음.
-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외교·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무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8차 정상회의(브뤼셀)에서는 불과 40여 일 후 개최되는 G20 서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SEM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으며,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에 대한 회원국의 주목을 이끌어낸 바 있음.⁹⁾
- 이번 10차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이 지역간 연결성(connectivity)을 설파한 것도 좋은 예로 볼 수 있음. **KIEP**

8) Brovelli et al.(2010), "Invisible Forum? The Public Outreach of the Asia-Europe Meeting (ASEM),"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Research*, Vol 6, Issue 4, p. 541.

9) 제8차 ASEM 정상회의 의장성명서: ... In this context, Leaders no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in Seoul, Korea, in June 2010, to support green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부록

부록 표 1. ASEM 회원국의 인구

주: 괄호 안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천 명)

	1980년	2000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세계	4,449,049	6,127,700	6,916,183	6,997,999	7,080,072
유럽: EU28+EFTA2	472,029 (10.6%)	498,601 (8.1%)	516,047 (7.5%)	517,781 (7.4%)	519,039 (7.3%)
비유럽 회원국 (아시아+기타)	2,512,934 (56.5%)	3,466,432 (56.6%)	3,834,649 (55.4%)	3,871,205 (55.3%)	3,907,751 (55.2%)
중국	984,016	1,280,429	1,359,821	1,368,440	1,377,065
인도	698,966	1,042,262	1,205,625	1,221,156	1,236,687
인도네시아	145,494	208,939	240,676	243,802	246,864
파키스탄	79,984	143,832	173,149	176,166	179,160
방글라데시	82,498	132,383	151,125	152,862	154,695
러시아	138,536	146,763	143,618	143,438	143,170
일본	115,912	125,715	127,353	127,319	127,250
필리핀	47,398	77,652	93,444	95,053	96,707
베트남	54,897	80,888	89,047	89,914	90,796
태국	47,369	62,343	66,402	66,576	66,785

자료: Eurostat, Asia-Europe meeting(ASEM) and EU Key statistical indicator.

부록 표 2. ASEM 회원국의 GDP

(단위: 10억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전 세계			32,841.5	46,464.0	64,171.4	72,384.5
유럽: EU28+EFTA3		9,698.1	8,944.6 (27.2%)	14,514.7 (31.2%)	17,299.5 (27.0%)	17,799.0 (24.6%)
비유럽 회원국 (아시아)	5,973.2	8,530.6	8,421.7 (25.6%)	11,312.8 (24.3%)	19,422.0 (30.3%)	23,826.4 (32.9%)
중국	390.3	727.9	1,198.5	2,278.1	5,931.4	8,225.9
일본	3,078.2	5,332.8	4,734.2	4,572.9	5,496.3	5,937.7
러시아	1,101.2	311.9	259.7	764.0	1,524.9	2,014.0
인도	334.9	378.3	484.5	837.5	1,704.8	1,875.4
호주	323.2	379.7	397.7	734.3	1,245.9	1,554.5
한국	275.0	539.1	533.4	844.9	1,014.9	1,129.1
인도네시아	106.1	202.1	165.0	285.9	709.2	878.0
태국	85.3	168.0	122.7	176.4	318.9	366.0
말레이시아	44.0	88.8	93.8	143.5	247.5	304.7
싱가포르	38.8	87.1	94.3	125.4	231.7	276.6

주: 미달러 기준. 괄호 안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GDP components, (December 2013)